

“국회는 지방 고유 사무 침범 말라”

## 道 공무원노조 국감자료 제출 거부

###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노조도 공동 대응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 지방고유 사무를 침범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 중 국정감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을) 의원이 최근 행정 안전부를 경유해 요구한 ‘자치단체

해외연수프로그램 현황’과 ‘자치단체 공무원외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 의원이 제출 요구한 ‘관용차량현황’자료에 대해서도 보좌관과 협의해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주당 김종조(비례대표) 의원이 요구한 신인조회 현황·감사내용·자체감사·교육감 선거관련·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요구한 업무추진

비와 정책연구용역 관련 자료 중 국

가위인사무와 관련된 용역과 국비지 원 용역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운석(무안·신안)

의원과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훈정우(서울 노원 병) 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위임사 무와 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자료 제출을 협조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보조관과 비서관 등을 통해 자료 거부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방침은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국감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해양 산성화 막자”

100여척의 어선과 어부 등이 6일(현지시각) 알래스카의 호마에서 화석연료 배출

로 인한 해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행사 중 ‘산성 해양(Acid Ocean)’이란 글자

를 써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이 대세인데…

## 광주 북구의회만 인상 추진

### 정가 라운지

#### 김효석 “당 대표 도전하겠다”



등의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 손재홍 “광주외고 설립 서둘러야”

○…민주당 김효석 의원(당·국성·구례, 사진)은 7일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때 당 대표에 도전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천이 민주당의 제일 큰 고민이고, 정세균 대표도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 “나는 중앙당에서 할 일이 많고 지금으로서는 지방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 ‘법야권 대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 이용섭 “전·월세 5%이상 인상 안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7일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신고제 등을 끌자로 하는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간접할 때 기준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간접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 市선관위 ‘선거 아카데미’ 운영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선거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의 내용은 입후보 준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선거공약 구상 및 개발 전략, 대중연설 및 방송토론회 활용 등 실제 선거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7일부터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jelection.go.kr>)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대만, 中에 땅 판다

#### 정부수립 후 처음

대만은 중국의 대만 투자를 확대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토지를 판매한다.

대만 재벌인 대만플라스틱그룹의 자회사인 관야과기공사는 7일 베이징에서 토지분양 행사를 열고 대만 타오위안 과기공단내에 조성한 토지 85㏊를 주택과 공장 건설을 위한 매물로 내놓는다고 베이징청년보가 보도했다.

대만이 중국기업이나 개인에 토지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당이 지난 1949년 대만에 정부를 수립한지 6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분양 책임을 맡은 대만 부동산회사 디아더랑항의 온라인 사장은 이번 토지판매는 지난 6월 대만이 대륙에 투자를 허용한 192개 분야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장은 이번 토지는 한 필지로 구입할 수도 있고 분할 판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만플라스틱그룹은 베이징에서 대만 토지 분양이 성공하면 이를 상하이, 선전, 사면, 홍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의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신주공단에 입점한 이번 매물은 7천500㎡(평당 135만원)선으로 85㏊의 총 가격은 19억원(3천420억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잇달아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의회만 의정비 인상을 추진,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 4천855만원의 의정비 요구를 중단하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애

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동결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구의회와 같은 수

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던 광주 서구의회는 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광주 광산구의회도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광산구의원들은 내년에 3천296만원(행정안전부 제시 금액 3천476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광주 동구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동구의원들은 내년에 1천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1천788만원의 월정수당을 합쳐 3천10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반면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북구청장에게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구의회와 같은 수

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던 광주 서구의회는 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 동결할 것으로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동찬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북구의회 의정비는 3천116만원으로 행안부 기준 대비 -15%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며 “타 기초의회에 비해 의정비가 떡없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여수·나주·담양·함평군 의회가 의정비 동결 결정했고 나머지 기초의회는 현재 협의 중이다. 전남도의회도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당수급 협의기구 설치 검토”

### 하토야마 ‘연정 구상’ 급물살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기오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민당, 국민신당 등과의 3당 연립정권이 탄생한 후 중요사안을 조정하는 당수급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연립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정책결정의 ‘내각 일원화’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수급 협의기구 설치를 수용할 경우 연립을 위한 실무 협상이 그룹을 탈 전망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사민당으로부터 정책조정을 위한 당수급 협의체가 있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회 은들 특가전**  
행사기간: 9월 11일(금)~15일까지 5일간  
광주신세계 지하 1층 대장 062-3360-1100

**Ondoland**

미래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행복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판매하는  
일상 빙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물하세요!

KALION  
290,000  
219,000

노비타 비데  
비데프라자 | 010-2515-1144